

학교탐방

고성고등학교

고성의 희망, 창의적인 인재 육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 동아리 활동 활성화

고성군 간성을 상리 125번지에 자리 잡은 고성고등학교(교장 함영세)는 1958년 개교해 올해 5월 54주년을 맞았다. 지금까지 7,727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함영세 교장

현재 전교생 328명과 교직원 30명이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교육목표 아래 명실공히 고성교육을 선도하는 중심학교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바른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성 교육,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 지원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중점추진과제로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고성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한 기초·기본학력 갖추기

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 개인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는 등 학력 향상과 창의·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대학입시전형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2011년도의 학교운영의 모토(motto)를 '느린 걸음의 교육'으로 정하고 학습이 짐이 되지 않는 교육, 교과와 체험 학습이 융합된 교육, 인원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통제와 강압의 타율적인 학습지도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의 희망과 의사를 존중하는 자율적인 학습지도 방법을 실천해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고성고등학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숙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아 2010년 4월 지상 3층의 건물에 생활관 26실, 식당, 인터넷강의실, 자율학습실, 체력단련실, 사위실, 세탁실, 휴게실 등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금강학사'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교 학생의 1/3에 해당되는 104명이 입사해 기숙하고 있다. 개인별 월운영비 중 2/3를 도교육청과

고성군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금강학사' 사생들은 대학입시를 전제로 한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및 소질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성고등학교는 이밖에 체험 학습을 통한 소질 개발 프로그램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관의 협조를 얻어 댄스아카데미, 요리국교실, 숲생태체험교실, 먹거리교실, 경제교실, 진로체험교실, 오감만족교실에 참가하고 있다.

교육활동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스키부, 사격부, 골프부로 구성되어 있는 육성종목의 체육활동이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확정되면서 스키부 학생들은 국가대표의 꿈에 부풀어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키부는 현재 바이애슬론 6명, 알파인 3명이 활동하고 있고 2010년도 전국동계체전에서 동메달, 문체부 바이애슬론대회 준우승을 했다.



고성고등학교 전경

함영세 교장은 "고성군청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고성고등학교의 미래는 밝다"며 "기숙형공립고등학교의 운영과 농산어촌 지역의 장점을 잘 살려 고성군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승근 기자

김광섭의 고성이야기 <23>

고성팔경(高城八景)⑦ 마산봉(馬山峰) Ⅲ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마지막구간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진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뼈대로 불리는 굵은 산줄기와 산이 낳은 물줄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여말 신경준의 『산경표(山經表)』에 의하면 이 백두대간을 축으로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현재 남한에서 제1구간 지리산 천왕봉을 출발해 남한의 최북단 고성 향로봉까지, 남녘 백두대간의 제24개 구간을 정해 놓고 있으며 이 구간을 이용하여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아다니고 있다.

백두대간(白頭大幹)=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산(靈山)인 백두산(2,750m), 그 장엄한 기운이 백두대간 마루금을 타고 힘차게 흘러와 마지막에 구슬처럼 맺힌 지리산은 배달겨레가 '어머니의 산'으로 여기는 산이다.

지리산 천왕봉을 시작으로 최북단 고성 향로봉까지 백두대간의 마지막 구간을 정해 놓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은 15구간인 태백산(1,567m, 우리말 '크게 밝다')부터 시작된다. 16구간인 화방재(花房臺)는 눈이 녹는 5월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여 9월 전까지 온갖 야생화가 활짝 피어난다고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만항재~함백산~싸리재~금대봉~피재에서 노루메기, 새목이를 지나면 17구간인 건의령(巾儀嶺)~푼대봉(1,010m)~덕향산(1,070m)~땃재(대동여지도 죽령(竹嶺)으로 기록에서

삼척지방에서 진산으로 숭상하는 두타산(頭陀山, 1,353m)부터가 18구간이며 청옥산(靑玉山, 1,403m)~이기령(耳基嶺)~상월산(970m)~백복령(白福嶺, 780m)은 과거 삼척에서 한양으로 오가는 사람과 물자는 대부분 이 고개를 통행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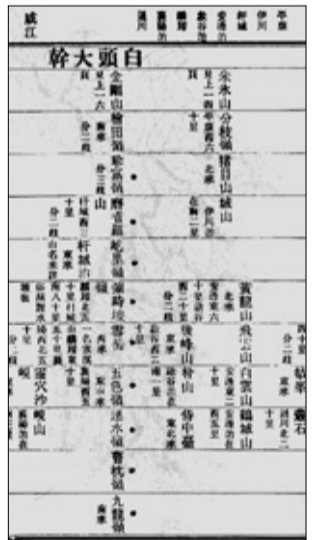
백복령을 지나서 자병산(紫屏山, 872m)부터가 19구간이다. 삽당령(插唐嶺, 산경표에는 插當嶺 기록)~화란봉(花蘭峰, 1,069m)~능경봉~백두대간의 큰 고개인 대관령(大關嶺, 832m)을 지나 선자령(仙子嶺, 1,157m)~소황병산(1,328m)~노인봉(1,338m)~진고개(백두대간 20구간이다. 진고개에서 오대산(오대산, 1,563m)~응복산(1,360m)~구룡령(1,013m)은 흥천에서 내면을 거쳐, 구룡령과 양양을 연결하는 56번 국도가 포장되었다. 구룡령에서 22구간인 조침령,북암령,단목령은 옛 화전민과 심마니, 약초꾼들의 숨결이 그리운 고갯길이다.

점봉산(點鳳山, 1,424m)은 자연생태보존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점봉산을 넘어 설악의 품인 한계령(寒溪嶺)이다. 조선시대 오색령(五色嶺)으로 불리던 한계령은 18세기 중반인 1751년(영조 27) 이중환이 저술한 『택리지』에도 '오색령'이란 지명은 여전히 등장한다. 이후 19세기 중반인 1861년(철종 12)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오색령 고갯길은 그려져 있으나, 10리마다 하는 거리 표

시인 방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거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았거나 별로 쓰이지 않는 작은 길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한계령에서 중청, 대청봉, 공룡능선을 지나 미시령까지 이어진 구간은 남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악의 품이다. 이 구간이 백두대간 23

구간이다. 마지막 구간인 24구간이라고 하면 고성군 지역으로 미시령(767m)부터 시작한다. 미시령은 조선시대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미시령의 옛 이름을 미시파령(彌時坡嶺)으로 적고 있다. 이를 한글로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파른 고개'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미시파령이 아니라 '연수령(延壽嶺)'으로 적고 있으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연수파령(連水坡嶺)'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고개가 미시령터널이 개통되면서 옛길로 남게 되었다. 신선봉(1,204m)에서 두 시간쯤 내려서면 대간령으로 불



왼쪽 백두대간 정간·정맥지도, 오른쪽 신경준의 산경표

리는 큰 셋령, 인제의 북면 용대리에서 작은 셋령(소간령이라고 하며 미시령과 진부령 '사이'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다)을 지나 마장터, 큰 셋령을 넘어 말의 모양 닮은 마산(馬山, 1,052m)을 지나 진부령(529m), 향로봉(香爐峰, 1,296m)까지를 말한다.



김 광 섭

- 향토사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사무국장
- 논문: (선유담의 고찰), (간성의 만경대와 누정 고찰)